

사랑이라는 위대한 것 (5): 오푸스데이의 소명이란?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넓고 관대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2025-11-3

(V). 오푸스데이의 소명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말

씀을 듣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도 매우 다른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이야기와 이미지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마르 4,31-32). 작은 씨앗이 땅에 묻혀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것과는 무관한 듯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계속 자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밤에도 자랍니다.

1928년 10월 2일, 하느님께서는 성 호세마리아로 하여금 오직 그분만이 심으실 수 있었던 한 씨앗을 자신의 영혼 안에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큰 밭에서 자라도록 부름받은 작은 겨자씨 말입니다. 그 씨앗의 유전적 암호를 몇 줄로 기록한 메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그리스도인들. 누룩이되는 대중. 우리의 것은 평범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수단: 전문적 일. 모두 성인이 되자! 조용한 헌신"[65].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 씨앗을 돌볼 사명을 주신 이후로, 성 호세마리아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약속이고 희망이었던 것이,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품고 많은 삶에 맛을 주는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이다.

"각 성인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서 가져다가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하시는 메시지입니다"라고 교황께서 쓰셨습니다[66]. 성 호세마리아는 한 메시지를 받아 그것을 육화시켰습니다. 그 자신이 메시지가 되었고, 그의 삶과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유익한 자취를 남겨 놓으십시오. 그대의 믿음과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그대 가슴 속에 간직한 그리스도의 불꽃으로 세상의 모든 길을 밝히십시오." [67].

그는 그 불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후스데이의 첫 충실한 신자들중 하나로 사제 서품을 받은 호세 루이스 무스키스가 즉시 감지했듯이 말입니다. 성 호세마리아와의 첫 만남에서, 성인은 그에게 아마도 아무도 전에 제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사

도가 되는 것. 그리고 즉시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보다 더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이 말이 그의 대화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것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정신적 회로들이 그때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68].

자신만의 소박함과 깊이로, 라칭거 추기경은 "'성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위험한 축소를 겪었으며,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단에 그려진 성인들을, 기적과 영웅적덕행을 생각하게 하며, 성덕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덕을 그 소수에게, 그 수를 모르는 소수에게 맡기고, 우리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영적 무관심 가운데서,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는 자명종처럼 외쳤습니다: 아니오, 성덕은 비범한 것 이 아니라 평범한 것, 세례받은 각자에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덕은 모방할 수 없는 어떤 영웅적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 가지 형태를 가지며 어떤 곳에서든 어떤 직업에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69].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인들은 현대 의학이 조사해야 할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입니다. 그대와 같은 육신을 지녔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70].

오푸스데이 부르심은 이러한 성덕의 정상성에 대한 의식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 이 음악의 "연주자"가 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악보들"이 존재합니다:

복음과 사도적 저작들; 성 호세마리아의 삶과 설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보편적 성덕 부르심의 선포[71]; 그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교황들의 최근 교도권[72]. 따라서 악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음악이 세계의 모든 구석에서 울려 퍼져야 하며,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무한한 변주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들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가까이 있다.

오푸스데이에 영감을 주실 때,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한 길을, 모든 종류의 일상적 풍경에 육화되도록, 매우 다른 사람들의 일,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과 융합되도록 "설계된" 영성을 선물하셨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 메시지를 많은 저작들, 강론들, 가족 모임들, 교리 여행들 등에서 전개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저 먼 지평선쯤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정말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인 그대 마음 속입니다." [73].

오푸스데이에의 성소가 사람들을 주도성으로,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욕으로 가득 채우지만,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또는 이미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것을 그분과 나누려고 노력하면서 하도록 이끕니다. "내 자녀들이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둘처럼 그분과 함께 살 정도로 그분을 가까이 따르는 것; 그분과 동일시되어 그분의 생명을 살 정도로 가까이, 우리가 장애물을 두지 않을 때, 성 바오로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

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74].

첫 번째 협력자들 중 한 명은 오푸스 데이의 창립자가 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관상의 길로 부르신다"고 말했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싸워야 했던 그에게, 그것은 "진정한 발견"이었습니다[75].

다른 경우에, 성 호세마리아는 조언했습니다: "이야기하라, 주님과 이야기하라: '주님, 저는 피곤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76] 바로 그것이 세상 한가운데 서의관상입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양육되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현실에 대한 깊고 사랑스러운 시선.

간단히 말해서: "세상 안에 있을수록 더 하느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라는

이 목표를 우리는 완수할 것입니
다."[77]. 그리고 이러한 친밀함, 그분
과의 이토록 강렬한 우정이, 오푸스
데이 성소에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이 길로 부르시는 그리스
도인들에게 특별히 두드러지는 두 가지
특징이 짙트는 뿌리입니다: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부르심과,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화해시키라는 사명.

그러나 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논리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제
기됩니다: 성덕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다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푸스데
이 성소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그리스도교 성소들이 세례로
전달된 생명과 성소의 수로들임을 고
려한다면 비교적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푸스데이

성소는 그리스도교 성소가 요구하는 하느님과 이웃들에 대한 헌신이나 봉헌을 받아들이고, 품으며, 인도합니다; 특별히 추가되는 유일한 것은, 정확히수로입니다: 그 봉헌이 교회의 구체적인 기관(오푸스데이)의 일부를 이루면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영성과 정확한 양성 및 사도적 수단들을 가지고"[78], 특히 일과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지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푸스데이부르심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며(이것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의 손을 잡고, 큰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그 도전에 맞설 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자신의 내적 생활을 기르고, 지성을 비추며, 인격을 풍요롭게 하여...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그 발견을 나눌 수 있도

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1928년 10월 2일의 신적 비추임과 그에 이어진 다른 비추임들은 성 호세마리아에게 모든 사람이 성덕과 사도직에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촉진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기관인 오푸스데이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신적 부르심을 받아들여, 매일의 현실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마음이 넓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자신을 따르는 군중을 보시고, 예수 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 9,36 참조). "그분께서 여러분에

게, 나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 때문에 목마르시고 시장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목마르다"(요한 19,2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목말라 하시고,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영혼에 목말라 하십니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모든 영혼에 목말라 하십니다." [79].

오푸스데이 성소는 하느님에 대한 그 굽주림과 목마름의 강한 "전염"을 의미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첫 번째 거주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때, 서두르지 말라고 그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피정에서 그는 기록했습니다: "서두름.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밀어 주시는 것이다"[80]. 성 바오로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재촉했습니다(2코린 5,14 참조).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요한 긴급함으로 우리가 각자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

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이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81]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도우며, 섬기며,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며, 배우며, 도전과 일들, 문제들과 근심들을 나누며, 우정의 유대를 만들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곳, 일하는 곳, 쉬는 곳, 쇼핑하는 곳에서, 우리는 누룩, 효모,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작품에 슈퍼히어로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넓고 관대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을 부르십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미 초기 텍스트에서 이를 내다보았으며, 오푸스데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겁쟁이들, 무분별한 자들, 비관주의자들, 미지근한 자들, 바보들, 게으른 자들, 소

심한 자들, 경박한 자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병자들,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더 클지라도 마음이 넓은 모든 사람들"[82].

요약하면, 하느님께서 이 길로 자신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비참함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큰 이상들로 가득하고, 사랑하려는 열망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요한 복음에서 읽습니다- 외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셨다"(요한3,16).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성덕의 장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본래 장소입니다.

다. 그리고 오푸스데이의 메시지는 그 핵심에 이러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계기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위대함과 비참함, 사랑과 증오, 원한과 용서, 전쟁과 평화의 신비로운 혼합체인 세상이 "하느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기"(로마 8,19)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창세기"는 두 동사를 사용합니다: "지키다"와 "가꾸다"(창세 2,15 참조). 계명의 준수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는 첫 번째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책임자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제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꾸다"라는 두 번째 단어로, "일하다"(보통 땅을)와 "예배하다"(민수 8,11 참조)를 모두 의미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일을 경배와 결합시키십니다: 일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을 성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세상을 지키고 가꾸기를 원하셨으며, 사람의 손으로, 피조물의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수세기동안 나자렛의 작업장에서 주님의 숨겨진 생활의 시절들이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들로 인식되었다면, 오후스데이의 정신의 빛으로 그것들은 "태양빛처럼 밝아지고 (...), 우리의 날들을 비추고 그들에게 진정한 투영을 주는 광채"가 됩니다. [83].

그래서 성 호세마리아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생활 부분을 자주 묵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것은 숨

겨진 조용한 밀알의 성장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자신을 밀알에 비교하실 것입니다(요한 12,24 참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의 작업장에서, 그 작업장-가정에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바로 그곳에서 그 순간에 구속을 행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아시면서.

성가정의 단순한 생활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사랑과 보살핌과 유용하려는 의욕으로 인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성소적 의미"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느님께서 자신을 어떤 것에 부르신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때 - 그것이 간호든, 목공이든, 소통이든, 공학이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다른 어떤 일이든- 그때 그는 자신의 최고의 희생, 관대함, 헌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입니다"[84].

그래서, "일을 성화하는 것은 일하는 동안 거룩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85]. 이렇게, "잘 완성된 인간의 일은 하느님을(...) 모든 것에서 발견하는 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물질주의가 일을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진흙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86].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알갱이가 숨어야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숨어서 사라지는 것이 나의 뜻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빛나시게 하는 것"[87].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이 오푸스데이에 부르시고 계속 부르실 모든 남녀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기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란을 일으켰다면,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빛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평

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알렸던 (...): 평화와 기쁨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평화와 기쁨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88].

에두아르도 카미노, 카를로스 아이셀라

- 성 호세마리아, "내적 수기", 35 항, P. 로드리게스,F. 오카리스, J.L. 일라네스,
-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2018년 3월 19일), 21항.
- 성 호세마리아, "길", 1항.
- "길", 비판-역사 판본, 417항 주석.
- J. 라칭거, 강론, 1992년 5월 19일, "로마나" 14호(1992), 48쪽에서 인용, opusdei.org에서 스페인어로 확인 가능.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현장 “인류의 빛”(1964년 10월 21일), 40항.
-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그리스도교 평신도”(1988년 12월 30일), 16-17항; 베네딕토 16세, 일반알현, 2011년 4월 13일; 그리고 최근에는 프란치스 코 교황의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2008년 3월 19일).
- 성 호세마리아, “주님과의 대화”, 비판-역사 판본, 101쪽.
- V. 가르시아 오스,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 몬시뇰과의 만남,” R. 세라노 편, “그들이 본 그분”, 리알프, 마드리드 1992, 83쪽.
- 성 호세마리아 타하마르 가족 모임 기록, 1972년 10월 22일 (opusdei.org의 다큐멘터리 “일의 심장”에서 수집).
- F. 오카리스, “교회 안에서 오푸스 데이에의 성소로서의 성소,” “교회 안의 오푸스데이”, 169쪽.

- 성호세마리아, “내적 수기”, 1753항, A.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데이 설립자”, 제1권, 리알 프, 마드리드 2010, 9판, 511쪽에서 인용.
- 성 요한 바오로 2세, “희망의 문 턱을 넘어서”, 플라사 & 하네스, 바르셀로나 1994, 19쪽.
- 성 호세마리아, 훈령, 1934년 4월 1일, 65항.
-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항.
-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2019년 3월 25일), 273항.
- F. 오카리스, “본성, 은총, 그리고 영광”, 에운사 2000, 263쪽.
- 복자 알바로 델 포르티요, 서한, 1975년 9월 30일, “가족 서한집”, 제2권, 63쪽 (AGP, 도서관, p17).
- 성 호세마리아, 서한, 1975년 1월 28일, E. 부르크하르트, J. 로페스,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

에서 일상생활과 성화”, 제2권,
리알프, 마드리드 2011, 301쪽
에서 인용.

“교회 안의 오푸스데이”, 리알프
1993, 216쪽에서 인용.

“길”, 133항.

성호세마리아, “밭고랑”, 309항.

성호세마리아, “담금질”, 740항.

성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02항.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30항.